



# “선후배 가교 역할...팀 분위기 살리겠다”

페퍼저축은행 레프트 박경현 구심점 활약

“리시브 보강...기복 없는 플레이할 것” 다짐

“제 몫을 다해 팀의 분위기가 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자프로배구 신생팀 페퍼저축은행 레프트 박경현(25)의 각오다.

박경현은 페퍼저축은행에서 몇 안 되는 베테랑이다. 다른 팀 선수들과 비교하면 베테랑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지 않을 수 있는 나이와 연차이지만 신생팀인 페퍼저축은행에서는 위치가 남다르다.

박경현은 지난 2015년 현대건설에 입단(전체 4순위)했으나 17~18시즌이 끝난 후 실업

무대(대구시청)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해 페퍼저축은행의 창단으로 4년 만에 V리그에 복귀했다. 드래프트에 지명된 기록이 있어 별도 드래프트를 거치지 않고 페퍼저축은행과 자유계약을 맺은 박경현은 예전 현대건설 시절과 다르게 리시브를 받는 살림꾼 역할을 하는 중이다.

지난달 29일 흥국생명전에서 18득점(공격성공률 44.4%)으로 개인 최다기록을 경신하는 등 22경기에서 152득점(공격성공률 35.08%), 리시브효율 23.94%를 기록 중이다.

박경현은 “현재 생활은 만족스럽다. 중간연차인데 팀에 도움이 되도록 선후배들 사이에서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박경현이 주력하는 점은 체력 유지다. 보강해야 할 점으로는 리시브를 꼽았다.

그는 “7구단 체제로 많은 경기를 하다 보니 철저한 체력관리는 필수”라며 “시합 전날 러닝을 하고 몸을 가볍게 만드는 등 몸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에 왼쪽 쪽저근막염이 생겼는데 팀에 들어오기 전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통증에 적응이 된 것 같기도 한데 치료를 받고 연습 강도도 삼하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경현은 “실전에서 리시브 부분이 많이 흔들린다”며 “최대한 기복이 없도록, 내가 해야 할 몫을 하면서 팀 분위기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신생팀 페퍼저축은행은 성장통을 겪고 있다. 신인은 물론이고 경력 있는 선수들도 그동안 다른 팀에서 백업으로 있다가 풀타임 경합이 없어 체력이나 경기운영에서 고전 중이다. 팀당 경기수도 기존 30경기에서 36경기로

늘어나면서 페퍼저축은행은 역대 최다패 불명예 기록도 예상되고 있다.

IBK기업은행이 팀 창단 후 1년간 훈련기간을 거친 뒤 리그에 참여한 것과 달리 창단 후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지 않고, 곧바로 V리그에 합류한 페퍼저축은행은 12일 현재 22경기에서 단 1승(21패)만 거뒀다. 페퍼저축은행의 창단 첫 승 상대인 6위 IBK기업은행(승점 9·3승 18패)의 경기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 ‘2승 달성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

박경현은 팀 성적이 좋지 않지만 팬들의 응원이 힘이 된다고 밝혔다.

박경현은 “선수 교체가 많이 없다 보니 체력적으로 지친 선수들이 많다. 초반 라운드보다는 확실하게 뛰어야 하는 것 같다”면서 “항상 ‘고생했다. 자신 있게 해라. 행복해라’라며 응원 해주시는 팬분들 다 보고 기억한다. 남은 경기 최선을 다하겠다. 끝까지 격려해주셨으면 한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조혜원 기자

## 광주FC, 대구서 박한빈·이상기 영입

광주FC가 대구FC에서 미드필더 박한빈(24)과 수비수 이상기(25)를 영입했다.

12일 광주FC에 따르면 박한빈(183cm 80kg)은 2016시즌 대구에서 프로에 데뷔해 통산 86경기 4골 1도움을 기록했다.

신갈고 재학시절 특출난 재능으로 일찌감치 청소년 대표팀에 소집됐으며 2015발렌틴 그라나트킨 U-18 친선대회, 2015수원 JS컵 축구대회 등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20경기를 소화했다.

지난 2020년 FC솔로반 리베레츠(체코 1부)로 입대를 떠나며 해외 진출에 성공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리그가 중단되면서 대구로 복귀, 팀의 ACL 진출과 역대 최고 순위(3위) 달성에 기여했다. 왕성한 활동량과 투쟁심으로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데 능하며 안정적인 빌드업으로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완벽히 소화하는 중앙 미드필더라는 평가다.

이상기(179cm 78kg)는 빠른 스피드와 정확한 크로스가 장점인 우측면 풀백이다. 탄탄한 수비력과 공격력을 바탕으로 오버래핑에 능하며 원어까지 소화 가능하다. /조혜원 기자



박한빈

이상기

포철공고-영남대를 거쳐 2017년 우선지명을 통해 포항 스틸러스에 입단했다. 프로 첫해 28경기에 출장하며 주목을 받았으며 상무와 대구를 거치면서 프로 통산 84경기 4골 4도움을 기록했다.

박한빈은 “광주는 언제나 뜨거운 패기와 열정, 탄탄한 조직력이 돋보였던 팀이다. 이 팀의 구성원이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상기는 “좋은 경기력은 물론,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승격이라는 짜릿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손흥민 부상...콘테 감독 “A매치 이달 복귀 어려워”

카타르 월드컵 예선도 공백

‘에이스’ 손흥민(30)의 부상 이탈에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근심도 깊어 간다.

토트넘을 이끄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손흥민이 이달 중으로 복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콘테 감독은 11일(이하 현지시간) 첼시와 2021-2022 카라바오컵(리그컵) 준결승 2차전을 하루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의 복귀에 대한 소식은 A매치 휴식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5일 첼시와 리그컵 준결승 1차전

(토트넘 0-2 패)를 치른 뒤 부상자 명단에 올랐다.

선발로 출전해 후반 34분까지 뛰 경기 다음날 다리 근육 통증을 호소했고, 9일 모어컴과 2021-2022 잉글랜드축구협회(FA) 컵 3라운드에 결장했다.

콘테 감독은 손흥민의 상태에 대해 “근육 문제다. 이전에 말했듯 다소 이상한 상황이다. 경기 중에는 문제가 없었고, 그다음 날 통증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 팀에 얼마나 중요한 선수인지 다들 아실 것이다.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토트넘은 한국시간으로 13일 오전 4시 45

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첼시와 리그컵 준결승 2차전 홈경기를 치른다.

1차전에서 0-2로 패한 만큼 결승 진출을 위해 대역전극이 필요하지만, 손흥민의 결장으로 전력에는 큰 공백이 생겼다.

콘테 감독의 예상대로 손흥민이 2월 초 돌아온다면, 한국 축구대표팀도 ‘캡틴’ 없이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7·8차전을 소화해야 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7일 레바논 원정에서 최종예선 7차전을, 다음 달 1일에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시리아와 8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득점이 보인다 덴버 너기츠 몬테 모리스(11번)가 12일(한국시간) 크립토타겟 아레나에서 열린 NBA 경기에서 LA 클리퍼스 테렌스 맨(14번)의 수비를 피해 슛을 시도하고 있다. LA 클리퍼스가 87-85로 이겼다. /AFP=연합뉴스

남자 핸드볼 국가대표

아시아선수권대회 출전

남자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단이 제20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12일 오전 출국했다.

박종하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우리 대표팀은 18일부터 31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담맘에서 열리는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10년 만에 패권 탈환에 도전한다.

16개국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는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벌인 뒤 각 조 상위 2개국 이 결선리그에 진출한다.

결선리그에서는 다시 각 조 상위 2개 나라가 4강에 올라 우승팀을 정한다.

지난해 12월 30일 충북 진천선수촌에 소집된 우리 대표팀은 A조에서 쿠웨이트, 요르단, 싱가포르와 조별리그를 벌인다.

이번 대회 상위 5개 나라가 2023년 폴란드와 스웨덴이 공동 개최하는 세계선수권 출전 자격을 얻는다.

한국은 올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전에 외국인 감독을 선임해 아시안게임과 2024년 파리올림픽 등을 대비할 예정이다.

◇제20회 아시아선수권대회 한국 국가대표 선수단

▲감독= 박종하(전북제일고) ▲코치= 백원철(하남시청) 강일규(대한핸드볼협회)

▲의무트레이너= 엄태욱(한재승) ▲전력분석= 우미희

▲골키퍼= 김동욱(두산) 박재용(하남시청)

▲레프트윙= 최범문(충남도청) 장동현(SK)

▲레프트백= 이요셉 박영준(이상 인천도시공사) 김태규(SK)

▲센터백= 김진호(강원도청) 이상(두산) 하태현(SK)

▲라이트백= 신재섭(하남시청) 조태훈(두산) 김진영(스페인 아데마르 레온)

▲라이트윙= 황도엽(두산) 하민호(인천도시공사)

▲피봇= 김동명(충남도청) 정진호(인천도시공사) 박세웅(SK) /연합뉴스

## KIA 손승락 전력강화 코디네이터 영입

구단 데이터 분석·현장 가교역할

KIA 타이거즈가 전력강화 코디네이터로 손승락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40)를 선임했다고 12일 밝혔다. KIA는 신규 트레이딩 플랫폼 도입 및 선수 출신의 전력강화(데이터) 코디네이터 영입으로 효율적인 데이터 분석 야구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손승락 코디네이터는 주요 트레이킹 데이터에 자신의 선수 시절 경험을 접목해 선수단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고,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은퇴 후 국내와 해외(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야구 공부를 이어 온 손승락 코디네이터는 다음달 미국 LA다저스 메이저리그 캠프 코치 연수를 떠날 예정이며, 2개월의 연수를 마친 뒤 구단에 합류할 예정이다.

손승락 코디네이터는 “현장에서의 경험과 직감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 요소지만, 최신 기술에 기반한 정확한 데이터 분석 및 전술 활용이 조화롭게 뒷받침됐을 때 더욱 빛날 수 있을 것”이라며 “구단의 데이터 분석과 현장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손승락

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KIA는 올 시즌을 대비해 영상 기반 트레이킹 장비 ‘호크아이’를 도입했다.

호크아이는 경기장에 설치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해 구장 안 모든 상황을 감지하고 데이터화하는 트레이킹 장비로, 모든 선수들의 역할 정보와 투구 정보, 타구 궤적 및 수비 지표 등 다양한 정보를 데이터로 제공한다.

KIA는 스트렝스&컨디셔닝(Strength&Conditioning·이하 SC) 코치 2명을 영입해 선수들의 부상 관리와 근력 강화를 통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한다. 이번에 영입된 김동후 SC코치는 럭비 국가대표팀과 상무, LPGA 선수 개인 트레이너 등 다양한 SC코칭 노하우를 지녔고, 박성준 SC코치는 프로 스코프 트레이너 등 고강도 체력 훈련 전문가다. /조혜원 기자

## 이상호 스노보드 월드컵 남자 평행 회전 5위

2월 베이징올림픽 메달 후보로 기대를 모으는 이상호(27·하이원)가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 남자 평행 회전에서 5위에 올랐다.

이상호는 1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바트 가슈타인에서 열린 2021-2022 FIS 스노보드 월드컵 알파인 남자 평행 회전 경기 8강에서 카를 베나민(오스트리아)에게 1.2초 차로 저출선 선수 58명 중 5위로 대회를 마쳤다.

예선을 1위로 통과해 다시 한번 월드컵 메달 획득 가능성을 부풀렸던 이상호는 16강 상대 야니크 앙게넨트(독일)가 완주에 실패해 8강까지 순항했다.

그러나 예선 9위로 올라온 베나민에게 달미를 잡혀 어렵게 4강에 들지 못했다.

이번 대회 결승에서는 아르비트 아우네르(오스트리아)가 베나민을 0.87초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홉 코스의 오스트리아 선수들이 1위부터 4위까지 휩쓸었고, 그다음 순위인 5위가 이상호다.

이상호는 이번 시즌 6차례 월드컵 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평행 대회전과 평행 회전 경기 성적을 합산하는 시즌 종합 순위에서는 이상호가 405점으로 여전히 1위다. /연합뉴스